

행정의 벽



홍 경 안 의
시시일각

김구림의 개인전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4년 2월 12일까지 이어진다. 당대 최고의 실험미술가로 꼽히는 작가의 예술세계를 조명하는 자리다. 1960년대 초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회화, 퍼포먼스, 전자예술, 비디오아트 등이 고루 출품됐다. 작품 수만 230여점에 달한다.

지난 7일엔 어느 한 장르로 귀속되지 않는 작가의 동시대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을 새롭게 구성해 주목을 받았다. 김구림이 직접 연출한 이 공연에는 영화와 무용, 음악, 연극을 잇는 4개 파트 70여명의 공연단이 함께 했다.

특히 마지막 파트인 연극 ‘모르는 사람들’에는 작가가 직접 출연해 동일 언어 속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들은 유함과 동시에 세월을 초월한 현역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 많은 이들의 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구순을 바라보는 김구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전시는 아쉬울 수 있다.

비좁은 공간에 작품을 다닥다닥 늘어놓는 수준에 그친 전시 구성(그가 남긴 아방가르드 유산에 대한 탐구 따윈 찾을 수 없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를 실망시킨 건 자신의 마지막 개인전이 될지도 모를 전시에 꼭 선보이고 싶었던 작품들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실제 그는 개막식이 열린 지난 달 24일 “아방가르드(전위)한 것이 하나도 없어 미안하고 부끄럽다”며 행정 규제 등으로 자신의 주요 작업을 재현하지 못한 데 대한 분노와 섭섭함을 밝혔다.

김구림이 그토록 시도하길 원했던 작품은 광복천으로 건물을 감싸는 ‘현상에서 흔적으로’이다. 그러나 미술관의 반대에 부딪혔다. 등록문화재인 미술관 외벽에 작품을 설치하려면 타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1900년대 초 서양 근대 모더니즘 양식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본관은 2008년 7월 등록된 문화재 375호이다. 등록문화재에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선 문화재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규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보니 여러 절차와 시간이 소요됨이 사

실이다.

‘현상에서 흔적으로’는 건축물에 어떤 손상도 주지 않는다. 천만 감는 것이지 나사 하나 사용할 일이 없다. 의지만 있다면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성을 고민해볼 수도 있었고, 내년 2월 마무리되는 8개월의 전시기간 동안 실현 가능하도록 대안을 찾는 등의 적극적 소통이 있었다면 작가의 섭섭함은 훨씬 덜했을 것이다.

행정의 벽은 높았다. 끝내 김구림의 ‘현상에서 흔적으로’는 재현되지 못했다. 작가가 원할 경우 오래된 건물의 벽을 허물거나 문화유적을 비롯한 미술관 건물의 주주가 드러나는 작품까지 허용하는 외국과는 차이가 있다. 우린 다르다. 행정이 예술을 앞선다. 균형도 아니다. 무조건 우위다.

미술관은 동시대성이 반영된 혼돈의 실험실로, 오브제로, 작가들의 자율성을 간섭하지 않는 탈규제의 공간이 돼야 하지만 갑갑한 행정은 미술관도 예외 없다.

건조한 행정은 미술의 진보를 가로막는 한국미술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김구림의 불발된 작품이 의미하는 것처럼 관에 집어넣어야 할 대상이다.

/미술평론가

관광시대, 치안문제 해결이 최우선



김 지 수 첩
(정책사회부)

지난 여름 일본 홋카이도 시코쓰도야 국립공원에 위치한 조잔케이 온천마을로 빛축제제를 보러 갔다. 온천 일대 자연 지형에 프로젝트 매핑(건물 등에 영상을 비춰 연출하는 예술 기법)으로 구현한 라이팅 퍼포먼스를 감상했다. 바위엔 자연의 신비를 느끼게 하는 생명수가 흘렀고 산책로를 수놓은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꽃들이 눈앞을 어지럽혔다.

‘서울에서도 이런 루미나리에(조명과 장식물을 활용한 빛의 축제) 페스티벌이 열린다면 관광객이 늘어 침체된 상권에 활기가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헛된 망상이었다. 문지마 칼부림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는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기자회견을 하려다 취소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흥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에 선불리 야간관광 부흥책을 내놓았다간 여론의 뭇매를 맞았을 터.

서울빛초롱 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축제 방문객의 지출액으로 인한 서울시의 순수 직·간접 생산파급효과는 263억9000만원, 소득파급효과는 51억3100만원, 부가가치파급효과는 103억4700만원에 이른다. ‘서울라이트 광화’, ‘광화문광장마켓’ 등 서울의 대표적인 야간 축제를 더하면 경제적 효과는 이를 훨씬 웃돈다. 치안 문제로 시는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야간 관광 수익을 허공에 날릴 위기에 처했다. 여행지로서 서울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혔던 ‘안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으

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흥기 난동 오인 대피 소동이 일어났다. 검은색 후드를 뒤집어쓴 남성이 전동차에서 승객들을 밀치고 중앙 통로로 달려가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문지마 칼부림이 벌어진 줄 알고 도망치다가 뒤엎겨 넘어지면서 18명이 다쳤다. 서울시민들은 칼부림 사건을 겪은 뒤에는 문지마 범피드 트라우마가 생겼다.

야간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취소 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세빛섬에서 개최된 ‘서울관광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야간관광 수요 창출 등을 통해 ‘3·3·7·7 관광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지마 칼부림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치안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3000만 관광객,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 달성’이라는 목표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hjk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21일 (음 8월 7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포장이 중요할 때도 있다. 48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껴라. 60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실수를 하게 된다. 72년생 말은 실체가 없어서 총알보다 빠르고 강력하니 가려서해야. 84년생 남의 흉보기전에 자신의 흉을 찾아보라.	
 소	37년생 자식자랑 말고 겸손을. 49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남의 일에 끼여들지 마라. 61년생 욕심이 지나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조금은 양보. 73년생 조연도 사람을 봐가며 해야 한다. 85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토끼	38년생 봄 처녀 마음처럼 설레는 하루. 50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62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은 없으니 생각. 74년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86년생 사업 확장하다간 풍비박산(風飛雹散).	
 토끼	39년생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51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63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니 잠시 지체. 75년생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87년생 승진으로 십 년 묵은 체증이 해소되는 느낌.	
 양	40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니 결단이 필요. 52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 64년생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로 되어간다. 76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88년생 4시 이후 차량사고유의 할 것.	
 원숭이	41년생 나비의 화려함이 애벌레의 시기를 거쳐서 나온다는 걸 명심. 53년생 비 온 뒤에 땅은 더 굳는다. 65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고 비일 언덕이 필요. 77년생 자신이 옳다고 여겨도 오늘은 침묵. 89년생 날새 탓만 하지 말고 외출을.	
 말	42년생 지나친 관심은 서로를 피곤하게 한다. 54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 66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78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여행을 떠나 보는 것도 좋겠다. 90년생 머리 아프면 집안청소를 해보라.	
 양	43년생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 55년생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67년생 일의 능률을 올리려면 분위기를 바꿔라. 79년생 소득이 있으니 능력을 최대한 발휘. 91년생 한 가지 일에 매진하도록 계획을 세워라.	
 원숭이	44년생 못 먹는 감 썰러보다 자신이 다칠 수. 56년생 멀리서 찾아온 친구가 즐거운 소식을 가져온다. 68년생 막상 급한 상황이 되면 지혜가 생겨난다. 80년생 지금까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 92년생 가까운 곳에 자금 해결책이 있다.	
 닭	45년생 급한 사람이 서둘러서 일을 시작하게 돼 있다. 57년생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실수가 없는 날. 69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81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원숭이띠의 도움으로 성사. 93년생 미운사람 딱 하나 더 준다.	
 돼지	46년생 배우자 탓이 아니라 내 탓. 58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을이 죄불안색이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70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82년생 일의 진척이 느려도 결과는 길선. 94년생 내가 놓은 덫에 내가 걸린다.	
 돼지	47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59년생 베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71년생 백지장도 맞들면 낀다니 협력을. 83년생 말로 듣기만 하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는 게 확실. 95년생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면 도리어 손해를 입게 된다.	



김상회의四季 큰 손 올드세대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떤 시장에서 성공할 기회가 있을지가 궁금하다. 향후 유망한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자영업자들과 상담하다 보면 고심하는 내용이 비슷하다. 수익이 생기고 돈이 물리는 캐시카우가 될 수 있고 지갑이 쉽게 열리는 소비층은 어디일까 하는 것이다. 현재의 생존이 걸려있고 미래가 달려 있으니 당연히 고심이 크다. 필자는 앞으로 올드세대가 유망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 올드세대는 ‘영 올드’를 줄여서 부르는 젊게 사는 시니어라는 뜻의 신조어다. 올드세대의 나이는 대략 50~70세인데 베이비붐 세대가 해당한다.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뒤로 물러나 쓸쓸히 늙어가는 이미지였지만 요즘은 크게 달라졌다. 올드세대는 우리나라 모든 세대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가 있는 편이다. 대학 교육을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지적 수준이 높아졌고 꾸준한 관리로 젊은 사람 못지않게 건강하다. 올드세대는 은퇴한 뒤에도 소비생활과 여가생활에 지출이 꾸준하다. 사회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전히 사회의 중심축이다. 자기를 위해 아낌없이 소비하는 올드세대는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드세대를 겨냥한 창업은 무엇보다 맞춤형 서비스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점점 치아가 약해지고 음식준비가 귀찮아지는 나이가므로 먹기 편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이다. 소규모 창업 컨설팅도 괜찮아 보인다. 은퇴 후에 제2의 삶을 꿈꾸는 경제활동에 힘을 주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IT문화를 어려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이나 앱 사용을 도와주는 아이템도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된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실버산업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며 서비스 시장에서 큰손으로 떠오르는 올드세대를 주목해볼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6 | 10,000원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2						3		
							5	7	9	
3				9				8		
			1	5	9					
				1	3	4				
					6	7	2			
		2					1			4
5	4	7								
	8							7		3

7									1
		2	7		3	5			
	5	1		2		9	3		
		2			3			7	
		7	9	6	4	3			
	4			5				9	
	1	8		4		7	6		
		5	6		1	8			
9									3

정답

8	2	1	9	7	9	6	8	1
8	9	1	6	2	8	1	7	9
7	9	6	1	8	1	8	2	9
9	1	2	1	9	8	7	8	6
1	6	8	7	6	1	9	9	2
9	7	8	2	6	9	1	1	8
2	8	7	9	1	6	9	1	8
6	1	9	8	1	2	8	9	7
1	8	9	8	9	7	2	6	1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